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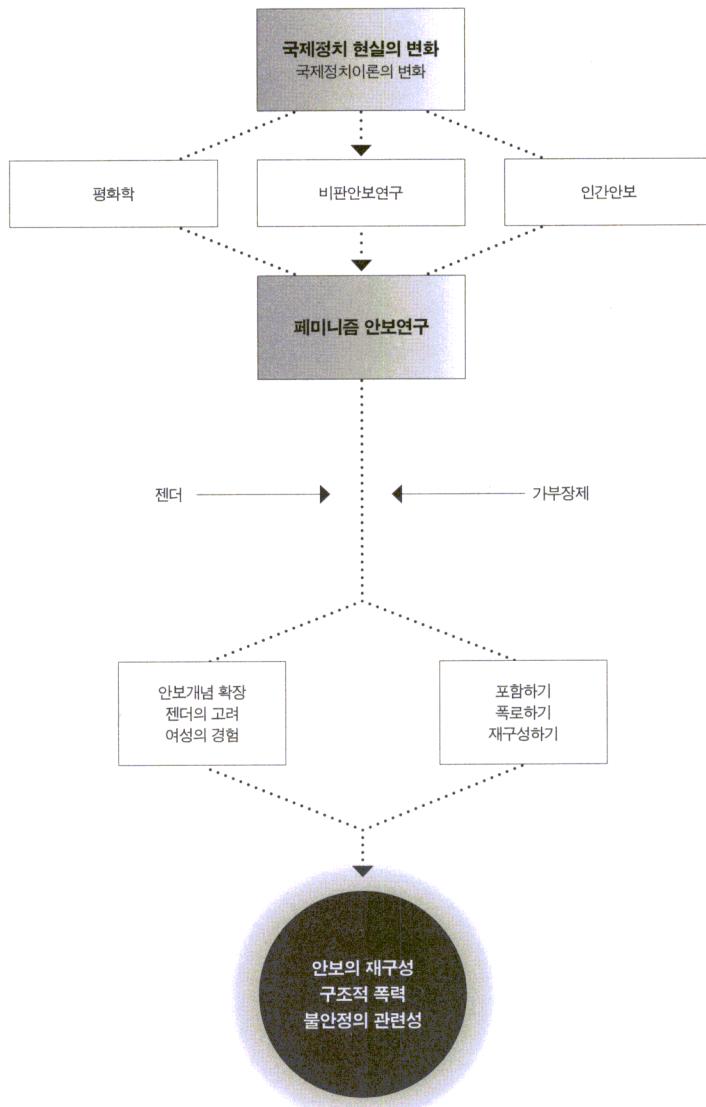
제1장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A Genealogy of Feminist Security Studies

황영주 |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한국의 (국제)정치(학) 분야에 있어 여전히 낯선 존재로 여겨지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특히 페미니즘 안보연구에 대하여 개관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였다. 첫째,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안보연구의 계보학에 집중하였다. 우선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후기실증주의적 경향, 특히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초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연구 저작들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평화학과 비판안보연구, 인간안보에 빛을 지고 있다는 점도 밝히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둘째,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분석 도구와 주요 주장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분석 도구로 사용되는 젠더와 가부장제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젠더는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주요 주장들을 스조버그와 피터슨의 주장에 따라 안보 개념의 확장, 젠더관계의 고려 및 여성의 경험 첨가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경험 포함하기, 남성성 폭로하기, 젠더로 재구성하기라는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셋째, 페미니즘 안보연구를 통한 안보분석의 특징과 사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여성의 독특한 정치체성과 여성의 주변성은 안보 개념을 재구성하고, 여러 불안정성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구조적 폭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현재의 일반적인 안보 연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접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동시에 페미니즘 안보연구를 통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다른 읽기도 시도하였다.

The main object of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ntroduction and overview of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feminist security studi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s: firstly, the study is dealing with the genealogy of feminist security studies. The early work of feminist IR theory was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theory of post-positivism and the critical studies. Also, FSS theory has been formulated by the change of International reality in the era of post Cold War. Peace Studies, Critical Security Studies and Human Security are heavi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FSS theory: secondly, this work looks after the concept of "gender" and "patriarchy" as main analytical tools for the study of FSS. Utilize gender and patriarchy, the FSS theory can be reached on the various kinds of alternative security ideas and concepts. For example, based on Sjoberg's work, FSS theory can contain the conceptualize of the extension of the concept of security, the consideration of gender relations and women's experience. Also, Peterson's idea can be considered, the adding women and their experience to existing framework, exposing the extend and effects of masculinity bias, and reconstructing theory of traditional security studies: thirdly, this work is looking around the features and case of FSS in which FSS theory is concentrated on women's unique identity, re-casting concept of security and the interrelated instabilities. Overall, the main idea of this work sets to the outline of feminist IR theory in general and FSS theory in specific

KEY WORDS 젠더 gender, 가부장제 patriarchy, 페미니즘 국제정치 이론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페미니즘 안보연구 feminist security studies, 여성과 국제정치 wome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등장

이 장은 페미니즘 안보연구(Feminist Security Studies)에 관해 자세히 검토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한 영역으로서 페미니즘 안보이론을 고찰하면서, 이 이론의 등장 배경, 주요 내용 및 분석 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냉전의 종결과 세계화의 확산은 국제정치 현실 변화는 물론 국제정치학 이론의 변화도 함께 초래하였다. 냉전 당시의 국제정치 현실을 반영하여 전쟁과 안보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이론적 우위를 점하였던 (신)현실주의적 패러다임은, 점차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국제정치 이론으로 대체되어갔다. 즉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는 국제정치 이론의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제3의 논쟁(the third debate)으로 대표되는 패러다임의 경쟁, 평화와 안보 문제에 관한 국가·인간 및 전 지구적 관점의 대립, 지구화와 반대되는 진영 간의 논쟁 등은 이와 같은 국제정치 이론 변화의 다양한 사례라 할 것이다.

페미니즘 정치학의 등장은 이와 같은 국제정치 이론 다양화의 결과 중 하나이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분과학문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88년 영국의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발간하는 국제정치학 저널인 『밀레니엄(Millennium)』 특별호에서 “여성과 국제정치(women and international relations)”를 다루었을 때부터이다. 이후,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비약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

자 중 한 사람인 티커너(Tickner)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을 다음과 같이 두 세대로 구별하고 그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제1세대(the first generation)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 비판적인 입장(the critical stance)에서 기존 이론이 갖는 가정, 개념 및 방법론에 도전을 시도하였다면, 제2세대(second generation)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페미니즘적 방법론을 통해서 이론의 정교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경험적 분석(empirical studies)의 경향을 보인다(Tickner 2006, 30).

사실상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학의 하위 분과학문으로서 상당한 성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수의 국제정치학 개론서에서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을 국제정치의 주요 이론 또는 방법론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여전히 개토(ghetto)화된 이론으로 여겨진다. 특히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즉 “시작된 지 20년이나 지났지만,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페미니즘 안보이론은 여전히 주변적 존재에 불과하다”(Romaniuk 외 2010, 32)는 것이다. 국내 학계의 사정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시도되는 연구에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극히 드물고, 그 수준 또한 이론의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안보연구 자체는 분단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자리하고 있는 바, 여전히 (신)현실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구갑우 2007), 이에 따라서 비판적·대안적 이론의 성향이 강한 페미니즘 안보연구가 자리 잡을 공간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은 페미니즘 안보이론의 전반적인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화(conversation)는 사실상 양방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방 적인” 대화 제의를 하고자 한다. 십수 년 전에 코헤인(Keohane)의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평가에 대한 웨버(Weber)의 독설 어린 저항과 비판은 적절하였으며, 동시에 전(정)통 국제정치학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상호 이해를 촉진 또는 퇴보시켰지만,¹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그러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페미니즘 안보이론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전(정)통적인 국제정치학과의 진지한 대화와 만남을 기대하고자 한다.

II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계보학

1.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기원과 확산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8년 영국 LSE에서 발간하는 국제정치학 저널

1 이 글에서 웨버는 코헤인(Keohane)의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분석을 비판한다. 웨버가 보기기에 코헤인의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Good Girls(페미니즘 입장주의자), Little Girls(페미니즘 경험주의자), Bad Girls(포스트-모던 페미니즘)으로 나뉜다. 코헤인의 이러한 분류는 국제정치학에 대한 여성의 기여가 현존하는 남성적 국제정치 이론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는가라는 기준에서 출발한다고 웨버는 비판하고 있다(Weber 1994).

인 『밀레니엄(Millennium)』 특별호에서 “여성과 국제정치(Women and International Relations)”를 다루기 시작한 이후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젠더의 수용은 당시의 여러 가지 국제정치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즉 권력과 국가안보 등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국제정치 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 80년대 이후 국제정치(학)에서 국제정치·경제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 새로운 연구 대상의 부각 등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본격적 등장은 “제3의 논쟁” 이후에 나타나는 국제정치 이론의 다양화 모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예를 들어 콕스(Cox)가 제기한 문제해결이론과 비판이론의 구별 문제,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4의 논쟁”, 즉 실증주의(positivism)와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의 논쟁² 등은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등장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갖는 성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은 주로 비판이론(critical theory)과 후기실증주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우선 비판이론이라는 성격에서 볼 때, 초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여성의 경험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기존의 세계정치에 대한 이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전통 국제정치학에 대하여 도전을 시도하였다.

2 제4의 논쟁의 핵심은 존재론(ontology) 및 인식론(epistemology),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한 경쟁적 접근이다. 특히 스테인(Stearns)에 따르면 제4의 논쟁은 실증주의자와 후기실증주의자 간의 논쟁이다. 그녀에 따르면 국제정치학의 주류 또는 실증주의자들은 국제정치학의 영역에도 자연과학과 유사한 방법론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서 객관적 지식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후기실증주의자들은 지식 구축을 간주관적 활동(inter-subjectivity)으로 여긴다(Stearns 2006, 22-23).

다. 이들 학자들은 또한 젠더분석이 시도될 때 국가체계에 대한 상이한 분석이 가능하며, 세계경제에서 여성들의 삶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Tickner 외 2011, 10).

또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후기실증주의적 성격도 함께 갖는다. 즉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전통 국제정치학이 일부 소수(대개 특권화된 남성)의 특권화된 지식으로 간주하는 후기실증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또한 전 세계적 사회 및 정치적 삶에 있어 주변화되거나 또는 여성화된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정치적 정향을 공유한다”(Tickner 외 2011, 6).

앞서 살펴보았듯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이론은 두 세대로 구별 가능한데, 제1세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기존 이론이 갖는 가정, 개념 및 방법론에 도전하고 있다면, 제2세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주로 경험적 분석(empirical studies)의 경향을 띤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성격 이해를 위하여 1990년대 초에 발간된 제1세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세 권의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저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랜트와 뉴랜드(Grant and Newland)가 1991년에 편집한 『젠더와 국제관계(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는 아마도 국제정치학 역사상 최초로 발간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저서라 할 것이다. 1988년 학술지 『밀레니엄』에 발표된 논문을 근간으로 하여 발간된 이 책에는 다양한 관련 주제의 글 10편이 실려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겐소(Morgenthau)의 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과 재개념화인데, 티커너는 “국제정치가 남성의

세계이며, 권력과 갈등의 세계에서 전쟁은 특권화된 위치에 있다” (Tickner 1991, 27)고 지적하며, 모젠소의 주요 개념들을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대체하려 한다.

1990년 웰슬리 대학(Wellesley College)에서 열렸던 “국제정치학에서 젠더(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학술회의는 피터슨(Peterson)이 1992년에 편집한 『젠틱화된 국가: 국제관계학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전망(Gendered States: Feminist (Re)vi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al Theory)』이라는 저서의 출판으로 이어진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의 근간이 되는 국가체제를 비판하며, 특히 국가가 무성적인(asexual) 존재가 아님을 강조한다. 국가, 주권, 무정부 상태, 정치적 정체성, 안보와 같은 국제정치학의 기본 개념을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비판하고 재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젠틱은 국제정치를 우연히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며, (따라서) 젠더를 진지하게 고려함에 따라 (국제정치에서) 경험적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풍부성 및 해방적 가능성까지 염볼 수 있다”(Peterson 1992a, 24)고 강조한다.

한편, 1992년에 티커너에 의해 발간된 『국제관계에서 젠더: 전구적 안보 성취를 위한 페미니즘적 관점(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교과서 중 하나이다.³ 이 책은 젠더 또는 여성의 경험이 포함될 때 국제정치학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것으로 주장한다. 특히 기존의 젠더화된

3 이 책은 황영주 외에 의해서 『여성과 국제정치』(2007)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되어 있다.

국가안보, 경제안보 및 생태학적 안보를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그 안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 볼 때 국제정치학에서 성적 차별의 극복은 “여성의 경험이 국제관계의 주제에 포함되는 맥락에서, 나아가서 국제관계학을 재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티커너 2007, 168) 하는 것이다.

2.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지적 기원: 평화학, 비판안보연구, 인간안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의 관계 속에서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지적 기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것은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함께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앞의 티커너나 피터슨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관계의 중심 개념(안보, 국가 등)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또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안보연구 등은 페미니즘 이외의 영역, 즉 비판이론과 후기실증주의적 정향의 이론에서 출발되어 그 주요 내용이 비판이론과 후기실증주의에서 다루는 안보연구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평화학, 비판안보이론, 인간안보이론에 큰 빛을 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평화학(Peace Studies)의 여러 가정과 주장들은 페미니즘적 접근과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 허드슨(Hudson)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화학 이론은 페미니즘과 인

식론 및 존재론, 더 나아가서는 다학문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Hudson 2008, 4-5). 평화학에서 적극적 평화론의 주장은 “평화를 단지 전쟁의 부재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의 충족,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구현하고 보전되는 것이 진정한 발전”(박주식 1996, 1)이라고 본다. 이러한 적극적 평화의 확보는 정의로운 국제사회질서의 구축과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의 제거를 통해서 가능하다. 페미니즘 안보이론은 구조적 폭력의 해결을 위한 규범적 접근을 시도한다. 티커너는 “(평화학이) 안보를 물리적, 구조적, 생태학적 폭력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오랜 관심을 가져온 페미니즘 이론과 진하게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티커너 2007, 42)”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비판안보이론(Critical Security Studies)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안보는 실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체성 문제로 인지된다. 안보는 국가와 행위자들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이와 같은 정체성들이 타국 내지는 타자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동시에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 둘째, 안보는 외부 위협에 대한 국내적 정체성의 구성으로 작동되며, 이에 따라서 안보의 기저에는 서구의 이원적 대립구조라는 인식론과 형이상학에서 출발한다. 셋째, 안보연구 자체는 일단의 해방적인(emancipatory)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억압에서 개인(과 집단)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Tickner 2004, 46-47).⁴ 페미니즘 안보연구에서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 형

성과 그것의 작동, 젠더 작동의 이원적 대립구조, 그리고 억압과 질곡으로부터의 여성 또는 인간 해방이라는 측면은 비판안보이론의 논의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연구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인간안보는 “인간이 안보의 대상물(referent)이 되는 것”(Hudson 2005, 163)이다. 이 이론은 안보가 국가와 관련한 것에서 인간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안보의 주요 목표는 보호와 힘 갖추기(protection and empowerment)이다. 이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연결된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생존, 기본적 욕구의 충족, 취약한 집단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및 보호 등을 강조한다. “(인간안보의) 주요 논점은 전 지구적 구조 속에 녹아들어 있는 인간들의 실제 생활, 인간의 일상적 경험 및 인간의 복잡다단한 사회적 경제관계에서의 안전(security)을 포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Hudson 2005, 163). 체노이(Chenoy)의 경우에도 인간안보와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유사성을 국가안보 개념의 수정, 환경·경제·사회 및 문화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의 해소, 모든 개인을 우선시하는 인간 중심으로 접근, 구조적 폭력에

4 다른 한편으로 비판안보는 다음과 같은 안보연구에서의 혁신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된다. 즉 구갑우에 따르면 비판안보연구는 “첫째는 존재론의 측면에서 안보의 대상을 국가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에서 전 인류로 확장하고 있다. 국가가 안보의 이름으로 개인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둘째, 인식론의 측면에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거부하고 연구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해석학적 인식론을 수용하고 있다. …… 셋째, 비판적 안보 연구에서는 주류 안보 담론처럼 안보를 위협의 부재로 정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안보를 개인과 집단의 해방과 연계한다”(구갑우 2007, 25-26).

대한 관심, 인권의 존중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Chenoy 2009, 44-46).

III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분석 도구와 주장

1. 분석의 도구로서 젠더와 가부장제

피터슨(Peterson)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에 관한 것이 아니며, 남성 위주의 사회 구성에 여성(의 존재)을 부가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페미니즘은 젠더화된 담론에 대한 이해와 변형을 통해서 존재(being)와 지식과정(knowing)에 관한 변혁(transforming)을 위한 것이다”(Peterson 1992b, 205).⁵ 이와 같은 존재와 지식과정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는 페미니즘이론, 구체적으로는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초가 되는 “젠더(gender)”와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된(social construction) 성(性)을 의

5 황영주는 또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을 소개하고 있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남성들이 주로 소유하는) 권력에 대한 찬탈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 아울러 (국제)정치의 일부 영역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일부 성공한 여성을 부각시키는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기존 학계에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국제정치(학)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데(exposing)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아울러 작금의 국제정치(학)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실한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황영주 2003, 12).

미한다. 이는 생물학적 성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학습된 개념으로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젠더 자체는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두지만, 반드시 그것으로만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페미니즘 정치학자들이 젠더를 사용할 때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정의된 특질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황영주 2008, 248). 젠더는 남녀 사이의 불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권력관계 및 정치현상을 분석하는 분석 도구로도 사용된다. 무엇보다도 젠더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 요소이자 동시에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Scott 1986, 1067). 우선 젠더의 구성은 남성성과 관련된 가치에 긍정적이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여성과 관련된 가치에는 부정적이며 낮은 가치를 매기게 되는 이원적 구별의 사회적 관행을 의미한다.⁶ 그런데 스코트(Scott)의 입장에서 보면 남녀관계, 혹은 남녀관계를 매개로 하는 젠더관계를 통해서 인간사회의 권리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스코트가 주장하듯이 젠더는 “권력이 표현되고, 또한 권력이 집합되는 일차적인 장”이며 동시에 “권력의 중요성과 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Scott 1986, 1069).⁷ 다시 말해서 “젠

- 6 이는 티커너의 지적에서 더욱더 구체화된다. “공과 사, 객관과 주관, 자신과 타자, 이성과 감성, 자율성과 의존성 및 문화와 자연이 바로 이원적 구별의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서 대개 앞의 것은 남성성과 관련된 특징이며 뒤의 것은 여성성과 관련된다”(티커너 2007, 24).
- 7 “새롭게 등장한 지배자들은 지배, 권력, 중앙집권적 권위 및 지배력 등을 남성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키는 반면, 적, 외부자, 반란자 및 약한 것을 여성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폄하시켰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들을 법률화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금

더는 기존의 남녀관계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지속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비단 남녀의 불평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대한 표현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황영주 2008, 249-250).

가부장제는 사실상 젠더를 분석의 도구로 사용함에 있어 이해되어야 할 중심 구조이다(Hoogensen 외 2004, 164). 실제로 가부장제는 젠더 이원적 대립구조를 일상화시키면서 동시에 지배적인 남성성의 표현이기도 한다. 월비(Walby)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부장제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사회 구조와 실제의 체제”(Walby 1990, 20)가 된다. 가부장제는 다양한 문화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며, 다양하게 발현된다.⁸ 특히 국가는 가부장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국가가 (젠더관계와 관련한) 갈등의 공간이며 동시에 단일한 실체는 아니지만, 국가는 자신의 정책과 행위에서 가부장제적 이해에 대한 체계적 편견을 실현한다”(Walby 1990, 21). 특히 월비가 보기에 가부장제는 19세기에는 사적인 영역에서 작동된 반면에, 20세기에는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됐다.⁹

지, 임신중절의 비합법화, 여성의 임금노동 금지 및 여성 의상에 대한 강제화 규정 등을 통해 여성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였다”(Scott 1986, 1072).

- 8 월비에게 있어 가부장제는 가정, 임금노동, 국가, 남성 폭력, 섹슈얼리티 및 문화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 내재되어 있고, 동시에 이를 영역에서 다양하게 발현된다 (Walby 1990, 21).
- 9 사적 가부장제(private patriarchy)는 여성 억압의 주요 장이 가정 생활의 영역을 기초로 발현되는 것인 반면에, 공적 가부장제는 고용 및 국가 등 원칙적으로 공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Walby 1990, 21-22).

2. 따로 또 같이: 페미니즘 안보이론의 공통된 주장

1) 안보 개념의 확장, 젠더의 고려, 여성의 경험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중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스조버그의 경우에는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공통된 특징과 그 주요 주제를 안보 개념의 확장, 젠더와 국제관계(와 그에 대한 비판), 안보에 있어 여성과 여성의 경험 고려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Sjoberg 2010, 4-6).

먼저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안보라는 개념의 정의에 있어 다면적(multidimensional) 또는 다수준적(multilevel) 접근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서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안보 문제에 있어 무엇을 볼 것인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와 관련한 광범위한 질문을 던진다” (Sjoberg 2010, 4). 이 맥락에서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관점은 “안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단지 전쟁이나 국제적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정폭력, 강간, 빙곤, 젠더 종속 및 환경 파괴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Sjoberg 2010, 4). 이는 티커너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많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들은 안보를 다면적 또는 다수준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데, 이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및 환경에 대한 폭력 등 모든 폭력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Tickner 1997, 624).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안보가 반드시 여성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안보 개념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안보 또는 국제정치와

그 연구에 있어 숨어 있는 젠더의 위계질서를 인지·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젠더와 젠더관계 자체가 안보 및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작동된다고 믿고 있고, 이를 통해서 “남성 성 및 여성성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들이 경쟁적 사회질서에 있어 다르게 대우받고 있으며, 이는 젠더 차이를 바탕으로 하는 불평등을 영속화시키게 된다”(Sjoberg 2010, 5)고 믿는다. 동시에 젠더에 나타나는 이분법적 사고(dichotomous thinking) 또한 현존하는 국제사회질서를 영속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인식은 국내/국외, 질서/무질서, 전쟁/평화 및 안보/불안정 등과 같은 이원적 대립구조에 기초하고 있다”(황영주 2007, 79).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젠더는 전통적 국제정치 또는 안보연구에 있어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분석 할 수 있게 한다. 즉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또는 안보연구는 국제정치의 핵심적 행위자로 간주되는 일원적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행위를 추상화할 때 그 기반은 남성의 행동에 대한 유추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황영주 2007, 78)이다. 둘째, 젠더는 국가의 안보 추구 행위에 대한 전통적 설명에도 비판적이다. “페미니즘 학자들은 국가의 외교정책의 선택을 남성 성, 남성다움 및 양성애라는 개념에 부가된 특징에 기초한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Sjoberg 2010, 5). 국가가 추구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개념 또한 이와 같은 남성적 특질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셋째, 젠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페미니즘은 안보이론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인식론적 재구성(epistemological constitutive)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개별적인 여성의

삶에 기반을 둔 관점으로 안보를 다시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안보인가라는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안보를 개념화시키고, 작동시키고, 아울러 행동과 연결시키는가의 문제에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Sjoberg 2010, 5).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마지막 특징은 안보연구에 있어 여성과 여성 경험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안보연구는 젠더 또는 여성과 여성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노력과 관점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국제안보에 관련된 페미니즘 연구들은 국제안보연구에 있어 여성의 부재 및 여성과 무관하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Sjoberg 2010, 6)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편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가 여성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에서부터, 여성과 평화의 관계 설정이 문제가 없는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

2) 포함하기, 폭로하기, 재구성하기

다른 한편, 피터슨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과 전통 국제정치학 간의 조우에 대하여 고민한다. 피터슨은 이와 같은 조우를 1) 현존하는 틀에 여성의 경험을 포함시키는 것, 2) 남성적 기준들의 정도와 영향을 폭로하는 것, 3) 국제정치학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Peterson 2004, 37-40)으로 정리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우 형태는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특징을 구조화하는 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틀에 여성의 경험을 포함시키는 것(adding women and their experience to existing framework)”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로(Enloe)의 독특한 연구는 현재의 국제정치학 모습에서 여성과 여성의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지 “보이지 않았다(invisible)”고 주장한다. 국제정치학에서 여성의 경험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인로의 질문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는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제정치학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작동, 즉 젠더의 작동은 여성은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 말았다”(Enloe 1989, 11). 특히 인로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정치는 여성 없이는 작동될 수 없는 공간이 된다. 여성들은 이미 국제정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국제정치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역할은 외교관 부인이나 군사기지의 성매매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한편, 안보와 안보 개념의 설정에 있어 여성의 경험을 추가하는 노력도 유사한 맥락의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험과 이해가 수용되어 있는 “구조적 폭력”은 페미니즘 안보연구에 주요 주제가 되어 있다. 티커너가 보기에 여성의 삶을 힘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국제정치 과정에 녹아 있는 일상적인 정치적·경제적 억압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다(티커너 2007, 99). 피터슨 역시 안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여성이 경험하는 구조적 폭력의 개선이라는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eterson 1992a, 49).

“남성적 기준들의 정도와 영향을 폭로하는 것(exposing the extent and effects of masculinity bias)”에서는 국제정치와 안보연구의 지배적 담론 제공자인 현실주의와 그것과 관련한 국가 중심의

담론이 어떻게 남성성(masculinity)과 관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주력한다. 겉으로 보기에 현실주의적 담론은 무성적이지만, 실제로는 남성 정체성의 반영물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주의는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동맹을 만들고 깰 수 있는 (그러나 타국의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분리되고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국가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율성 개념은 …… 남성적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Goldstein 2002, 157). 또한 현실주의에서 국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힘” 또는 “권력”은 남성적 성격의 표현에 불과하며, 권력 자체는 남성다움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티커너 2007, 78).¹⁰ “엘리트, 백인, 남성, 실행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실주의는 가부장제적 담론이며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여성 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Blanchard 2003, 1292). 국가의 행위는 남성적 행위에서 추상화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행위로 간주되는 인간성의 모델은(이는 주로 원자적이며, 자조적이며, 획득적이며, 경쟁적인데) 특정한 인간 종의 부분집합(subset), 즉 엘리트 남성과 근대 유럽에 기반을 둔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 기인한다”(Peterson 2004, 37).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국가가 안보 제공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가는 국민과 여성 보호를 벨미로 위계질서 및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다(Peterson 1992a, 51).

“국제정치학 이론을 재구성(reconstructing theory)”하는 것은

10 예를 들어 “남성다움과 관련된 특징들, 예컨대 강인함, 용기, 권력, 독립, 심지어 육체적 강함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기준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국제정치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흔히 남성다움은 폭력 및 무력의 사용 등 국제 영역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행동 양태로, 아울러 국가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거나 지지를 받아왔다”(티커너 2007, 22).

안보 개념을 재구성하는 노력일 것이다. 안보 개념의 재구성은 폐미니즘 국제정치학의 1세대의 연구 결과이며, 특히 티커너의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더욱 포괄적이며 전 지구적인 안보에 주목하는 티커너는 “평화 달성, 경제 정의, 생태학적 지탱은 지배 종속의 사회적 관계를 극복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진정한 안보는 전쟁 소멸과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포함하는 불공정한 사회관계의 제거를 함께 필요로 한다”(티커너 2007, 166).¹¹ 특히 국가안보의 재구성은 여성의 이해와 전 지구적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해야만 한다. 국가안보의 강조는 도리어 개인과 여성 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가 안보의 제공자라는 개념은 해체되어야만 한다. 현재 세계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개별 국가의 독립적인 정치적 이해보다는 전 지구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화해 및 조정이 국제정치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황영주 2003, 59)는 모토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경제안보의 재구성은 지금까지의 경제적 합리성, 즉 개인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을 극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 영역에 현재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과 같은 여성의 노동도 포함시켜야만 한다. 사회 및 경제 개발에서 여성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상품 자체와 부의 재생산보다는 오히려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경제적 전략으로의 이행이야말로 경제적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 된다(황영주 2003, 59). 생태적 안보의 확보는 인간/자연의 관계가 남성/여성의 문제로 환치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11 이후의 내용은 황영주(2012, 362)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 현재의 환경 위기 극복은 단기적으로는 환경정책에 있어 여성의 참여, 장기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적인 태도의 변화에서 출발한다(황영주 2003, 62).

IV 폐미니즘 안보연구를 통한 안보 분석

1. 안보의 재구성, 구조적 폭력의 개선, 불안정의 관련성

후겐센과 로템(Hoogensen and Rottem)의 입장에서 폐미니즘 안보 연구는 안보의 재구성, 구조적 폭력의 극복 및 폭력의 상호 관련성 폭로에 주목하고 있다(Hoogensen 외 2004, 165). 안보의 재구성은 국가안보, 국제정치경제, 환경에 대한 대안적 안보 제시와 일차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국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여성)에 안보 중심을 두는 인간 중심적 안보는 폐미니즘 안보연구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폐미니즘 안보연구는 안보 문제를 위에서 아래로 보기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보는 특징을 가진다. 이때 안보의 수혜자는 국가가 되기보다는 인간 또는 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안보의 수혜는 전 지구적 영역의 안정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폐미니즘 안보연구는 민족국가 단위보다는 지구를 하나의 안보 단위로 설정하여, 안보를 포괄성(inclusivity) 내지는 전체성(holism)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폐미니즘 안보연구는 구조적 폭력의 제거에도 초점을 맞춘다.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연

구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에서 유래되었다.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이와 같은 구조적 폭력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구조적 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정 해소에 노력한다. 말하자면, 전쟁이 갖는 직접적 폭력 대신에 구조적 폭력의 해소와 박멸이 안보의 핵심 가치가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적극적 평화의 개념 구축은 여성의 힘 갖추기와 관련된다. 평화를 전쟁의 부재(the absence of war)라고 보는 입장은 평화를 소극적·비활동적인 것으로, 전쟁을 적극적·활동적으로 보는 젠더의 (재)구성을 재생산하기도 한다.¹² 평화 또는 안보 개념을 구조적 폭력의 제거로 보려는 노력은 여성에 대한 억압 해소와 안보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성의 눈과 힘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여성의 힘 갖추기(empowerment)와도 연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모든 폭력의 상호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은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이다. 국가 중심의 안보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안보는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성에 착취적인 노동은 지구화와 군사문화가 가부장제와 결합하는 공간으로 작동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인, 국가, 전 지구가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60~70년대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와 가부장제적 문화의 작동 대상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 동맹의 경제

12 예를 들어 이러한 입장은 “여성이 갖는 경험에 비추어 돌봄의 제공자(care-giving), 도덕적 어머니(moral motherhood), 모성애 사고(maternal thinking)에 주목하는 것이다. 사회에서의 남성과 상이한 특수한 경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평화와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등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만든다”(황영주 2012, 360).

적 결과이자, 냉전이라는 이원적 대립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국제 정치체제의 희생물이기도 하다.

2. 페미니즘 안보이론으로 한반도 안보 다시 보기

한반도에서의 안보 문제를 대안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 중 하나이다. 한반도는 겉으로는 냉전이라는 규정성이, 안으로는 상호 적대적 정체성이 고도로 작동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적에 대한 압도적 힘 또는 군사적 우위라는 냉전적 사유는 유일하게 유효한 담론으로 남아 있으며, 동시에 남북한의 상대방은 없어지거나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블레이커 2009). 무엇보다도 정치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작동되는 미국의 영향력 또한 한반도 안보를 다르게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구갑우 2007, 10-22). 이에 따라서 여성의 눈으로 한반도 안보를 다시 본다는 사실은 어려운 작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한반도 안보의 모순과 군사적 안보의 작동 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¹³

페미니즘의 분석 도구인 젠더 구성에 있어 이원적 대립구조는 한반도 안보 구성에 있어 중심 가치로 작동하는 남북한의 상호 적대적 정체성의 지속적 재구성과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 공적/사적, 객관/주관, 주체/타자, 이성/감성 등의 젠더화된 이원적 대립

13 여기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황영주(2012)의 “V. 폭력적이거나 천박하거나: 한반도를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으로 다시 보기”에 근거하고 있다.

구조는 한반도의 안보에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구축한다. “남북한 안보 딜레마의 핵심은 원천적으로 정체성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은 분단 한반도의 다른 쪽의 정치제도를 상당히 위협적이고, 무엇보다도 악(惡)한 존재로 그려내고 있다”(블레이커 2009, 80). 나/너, 우리/타자라는 이원적 대립구조는 타자로서의 적은 우리의 부정어이며, 또한 우리 정체성은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확인되어 한반도에서 군사주의적 대립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김엘리 2002, 10).

여성성을 폄하하는 지배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역할에 대한 과신과 (신)현실주의적 안보 담론과 연결되고 있다. 페미니즘의 이론에서 큰 것 또는 자기보다 힘센 것에 대한 열광은 남근숭배(phallicism)로 설명된다. 큰 것에 대한 열망은 한반도 안보 유지를 위해서 강대국 역할의 과도한 선망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갖는 현실주의적 위상과 연결된다. 구갑우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탈냉전시대에 예상할 수 있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질서는 세계 균형 또는 단극시대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과 균형을 이룰 만한 국가의 등장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위협적, 일방적 정책의 지속일 수 있다”(구갑우 2007, 150). 실제로 미국의 현실주의적이며 과도한 군사주의적 입장은 타국의 불안정을 더욱 배가시키며,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블레이커 2009, 53)고 평가된다.

페미니즘에서 경쟁은 일부 남성의 정치적 경험을 일반화시킨 것이다. 남성적 관점에서 정치는 권력을 향한 경쟁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 페미니즘은 경쟁과 지배보다는 연대와 돌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황영주 2008, 252). 하지만 경쟁은 남북한의 현실주의적 안보 원리에서 결정적인 구성 원리로 작동한다. 남북 한은 상대방의 군사 능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끊임없는 군비경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한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명백한 전략적 우위를 지키고 있고, 북한보다 압도적인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군비경쟁을 지속시킨다. 북한 역시 재래식 무기에서의 전략적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중한다. 이와 같은 남성적 군비경쟁은 한반도에서 안보 딜레마를 조장하거나 보장한다.

V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미래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결실 중 하나는 2000년도에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와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1325호 결의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 결의안은 폭력과 관련한 여성의 특수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외에도 평화 구축 및 갈등 해결에 있어 젠더 관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Hoogensen 외 2004, 167). 또한 이 결의안은 평화와 안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여성운동의 결과물이다. 강윤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 안보 분야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도록 유엔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 활동을 펼친 여성들의 노력

의 결실이었다”(강윤희 2006, 66). 특히 2002년에 유엔에 의해서 채택된 보고서인 “여성, 평화와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에서는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안보와 젠더 관점의 통합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장은 여전히 한국의 (국제)정치(학) 분야에 있어 낯선 존재로 여겨지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특히 페미니즘 안보연구에 대하여 개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였다. 첫째,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안보연구의 계보학에 집중하였다. 우선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후기실증주의적 경향, 특히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초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연구 저작들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페미니즘 안보연구는 평화학과 비판안보연구, 인간안보에 빛을 지고 있다고 점도 밝히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둘째,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분석 도구와 주요 주장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분석 도구로 사용되는 젠더와 가부장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젠더는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주요 주장들을 스조버그와 피터슨의 주장에 따라 안보 개념의 확장, 젠더관계의 고려 및 여성의 경험 첨가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경험 포함하기, 남성성 폭로하기, 젠더로 재구성하기라는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셋째, 페미니즘 안보연구를 통한 안보 분석의 특징과 사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여성의 독특한 정체성과 여성의 주변성은 안보 개념을 재구성하고, 여러 불안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구조적 폭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를 통하여 현재의 일반적인 안보연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접근이라는 점을 부각 시키고자 하였다. 동시에 페미니즘 안보연구를 통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다른 읽기도 시도하였다.

현재는 페미니즘 안보연구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황영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자유주의 페미니즘 군 입대 담론, 또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또 다른 담론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황영주 2007, 89). 이는 실버스터(Sylvester)의 주장에서도 반복되는데, 그녀는 페미니즘 안보연구에서 전쟁과 평화의 분기(分岐)를 고민하라고 조언한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페미니즘 안보연구가 여성의 안보에 대한 보편적 고려는 물론, 개별 인종, 문화, 종족, 종교 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의 여성 경험을 어떻게 통합시켜나가야 하는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ylvester 2010).

참고문헌

- 강윤희. 2006. “여성과 평화: 국제적, 지역적 평화 표준 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제학술회*. 서울: 6월.
- 구갑우. 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티스.
- 김엘리. 2002. “군사주의, 여성, 탈군사회를 위해서.”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학술대회. 서울: 6월.
- 박주식. 1996. “탈현실주의 평화학.”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1-39.
- 블레이커, 롤란드(Bleiker, Roland). 황영주 역. 2009. 『한반도 안보 다시보기: 화해의 문화를 위해서』. 부산: 부산외대 출판부.
- 티커너, 앤(Tickner, J. Ann). 황영주 외 역. 2007. 『여성과 국제정치』. 부산: 부산외대 출판부.
- 황영주. 2002.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소식* 제105호, 12-14.
- _____. 2003.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지구는 내가 지킨다의 페미니즘적 재정의.”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45-68.
- _____. 2007.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75-94.
- _____. 2008. “정치학에서 페미니즘 접근방법”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정치이론과 방법론』. 서울: 법문사.
- _____. 2012. “대치동, 타워팰리스 그리고 흰색 자전거: 드라마 「아내의 자격」과 (한국에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 엿보기.” *『정치정보연구』* 제15집 1호, 349-374.
- Goldstein, Joshua S. 김연자 외 역. 2002. 『국제관계의 이해』. 경기: 인간사랑.
- Blanchard, Eric M. 2003. “Gende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Feminist Security Theory.”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 1289-1312.
- Chenoy, Anuradha M. 2009. “The Gender and Human Security Debate.” *IDS Bulletin* Vol. 40, No. 2, 44-49.
- Enloe, Cynthia. 1989. *Banana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ant, Rebecca and Kathleen Newland (eds.). 1991.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Hoogensen, Gunhild and Svein Vigeland Rottem. 2004. “Gender Identity and the Subject of Security.” *Security Dialogue* Vol. 35, No. 2, 155-172.
- Hudson, Heidei. 2005. “Doing Security as though Humans Matters: a Feminist perspectives on Gender and the Politics of Human Security.” *Security Dialogue* Vol. 36, No. 1, 155-174.

- _____. 2008. "Feminist Analysis at the Intersection of Critical Security Studies and Peace Studies." presented paper in Annual Meeting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s.
- Peterson, V. Spike 1992a. "Introduction." in Peterson (eds.), *Gendered States: Feminist (re)vi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Colo.: Lynne Rienner.
- _____. 1992b. "Transgressing Boundaries: Theories of Knowledge,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Vol 21, No. 2, 183-206.
- _____. 1996. "Subjectivity, Security and Sovereignty: Making Connections." Presented paper in Annual Meeting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 _____. 2004. "Feminist Theories Within, Invisible to, and Beyond IR."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Vol. 10, No. 2, 35-65.
- Romaniuk, Scott Nicholas and Joshua Kenneth Wasylciw. 2010. "Gender includes Men Too! Recognizing Masculinity in Security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erspectives* Vol. 18, No. 1, 23-39.
- Scott, Joan. 1986.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1, No. 5, 1053-1075
- Sjoberg, Laura. 2010. "Introduction." in Sjoberg (ed.). *Gender and International Security*.
- Stearns, Jill. 2006.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ition. Cambridge: Polity.
- Sylvester, Christine. 2010. "Tensions in Feminist Security Studies." *Security Dialogue* Vol. 41, No. 6, 607-614.
- Tickner, J. Ann. 1991. "Hans Morgenthau's Principles of Political Realism" a Feminist Reformulation." Grant and Newland (eds.), in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_____. 1997. "You Just Don't Understand: Troubled Engagements between Feminists and IR Theoris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4, 611-632.
- _____. 1999. "Searching for the Princess?: Feminist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1 (Fall), 44-49.
- _____. 2001. *Gendering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Feminist Responses to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Peace Review* Vol. 16, No. 1, 43-48.
- _____. 2005. "Gendering a Discipline: Some Feminist Methodological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Relation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30, No. 4, 2173-2188.
- _____. 2006. "Feminism meets International Relations: Some methodological Issues." in Brooke A. Ackerly, Maria Stern and Jacqui True (eds.), *Feminist*

- Methodolog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ckner, J Ann and Laura Sjoberg. 2011. "Introduction: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Feminist Lenses." in Tickner and Sjoberg (eds.), *Femin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New York: Routledge.
- Walby Sylvia. 1990. *Theorizing Patriarchy*. Cambridge: Basil Blackwell.
- Weber, Cynthia. 1994. "Good Girls, Little Girls, and Bad Girls: Male Paranoia in Robert Keohane's Critique of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Vol. 23, No. 2, 337-349.

필자 소개

황영주 Hoang, Young-ju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International Relation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부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영국 혈 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지구는 내가 지킨다의 페미니즘적 재정의”, “대치동 타 위밸리스 그리고 흰색 자전거: 드라마 「아내의 자격」과 (한국에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 엿보기”, “롯데자이언츠의 (부산) 정치학적 함의”

이메일 hoangjr@bufs.ac.kr